

‘시 배달원’ 이매리… 고려인마을 이주사 그리다

詩

예술공간 집 ‘그들은 우리가 된다’

광주비엔날레 기간…인류사 조명
‘이민자의 물건들’ 등 3개 섹션
예술로 포용과 공감의 시선 제시

인문학적 시각으로 인류의 근원을 고민하는 ‘시(詩) 배달원’ 이매리 작가가 오는 4일부터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특별기획 초대전 ‘그들은 우리가 된다(They Become Us)’를 연다. 국내외 이력을 자랑하는 중견작가로서 광주에서 여는 4년 만의 전시임과 동시에 9월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발맞춰 더 깊어진 시각을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광주의 현존하는 인류 생태계 ‘고려인마을’을 관찰, 그들의 이주사를 추적하며 공동체를 향한 포용과 공감의 시선을 그려낸다.

전시명 ‘그들은 우리가 된다’는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그들’에서 ‘우리’로 향하는 작가의 시선을 포괄적으로 대변한다. 이매리 작가에게 광주는 삶의 터전이자 작품 활동의 기반이 된 곳이다. 이

러한 광주에 형성된 큰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고려인마을’이 이번 전시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되었다. 이처럼 전시명은 고려인 동포와 광주의 원주민들을 가리키고 있다.

‘고려인 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상 광주시 광산구 월곡 2동이다. 2004년부터 소수의 고려인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친족 및 지인들이 연쇄 이주하면서 7000여 명이 군집했다. 광주 안에 존재하는 가장 국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조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그 뿌리가 우리 동포인 셈이다. 이매리 작가는 전쟁과 이주가 엮여낸 고려인의 역사적 서사에 주목한다.

전시는 3개 섹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섹션은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이다. 이 작품은 고려인 마을에 송출되고 있는 ‘GBS고려방송(FM93.1MHz)’을 활용한 복합 매체 설치 작품으로, 회화작품과 함께 사운드, 라디오편성표 등이 한 공간에 자리한다.

두 번째 섹션은 ‘이민자의 물건들’이다. 이 작품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실제 이주민과 협력해 그들의 사물들을 수집했다. 고향의 기억이 각인된 ‘사물’은 새로

운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복, 시계, 수첩 등 한국에서 사용 가치는 사라졌지만, 한 인간의 기억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물을 소환한다.

세 번째 섹션은 ‘시대사적 사건들의 드로잉 Map’이다. 이 작품은 전시장의 가장 큰 벽면을 차지하는 대작이다. 시커먼 블랙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이들의 이주 역사를 시각화했다. 전쟁과 이주의 과정 등으로 얼룩진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역사적 사실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매리 작가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어떤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며 “한편으로 고려인을 우리 주류사회로 진입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계했다. 그들도 삶의 욕망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류로 바라보며 ‘인류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각예술로 보여주고자 한다. 나의 작품들이 ‘그들’을 ‘우리’로 엮어 내는 큰 울림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형 예술공간 집 대표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으로 광주 곳곳이 미술축제가



이매리 작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예술공간 집 제공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한 전시다”며 “광주 역사의 한 단면이랄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예술이 품어 낸 포용과 공감의 시선을 느껴볼 수 있다. 국내외 많은 미술 관계자와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닝 행사는 오는 5일 오후 5시 예정돼 있으며 추후 이매리 작가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오버랩 ‘새로운 땅, 오래된 일상’ 전

오늘부터 ICC 결과 보고전
강윤지 신진 큐레이터 참여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이 3일부터 12일까지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ICC 결과 보고전으로 ‘새로운 땅, 오래된 일상’을 선보인다.

오버랩은 지난 4월 ICC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2인의 신진 기획자를 선정해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새로운 땅, 오래된 일상’은 ICC 참여자인 강윤지 큐레이터가 여러 활동에 이어 진행하는 첫 번째 전시다. 그는 개인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이주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형태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내면에 주목한다. 특히 김도경 조각가와 협업해 주요작품으로 ‘사다리타기(Ghost Leg)’와 함께 오래된 일상의 기억을 소환하는 슬라이드 필름 작업 ‘step by step’, ‘C have something’을 선보인다.

김도경 작가는 “사다리 타기는 운명을 정하는 놀이다. 사다리라는 도구와 게임은 시작지점이 정반대이다”며 “단지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 선택과 결과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강윤지 큐레이터는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과 이주의 경험으로 달라지는 현대인



김도경 작 ‘사다리타기’.

오버랩 제공

의 삶의 패턴과 감각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변화되거나 지속되는 일상에 주목한다.

강 큐레이터는 “현대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주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회 흐름 속의 개인과 사회의 동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버랩 전시장은 남구 구성로에 있다. 전시 관람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7일 오후 2시 전시 연계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ACC서 국내 최초 AI 아바타 제작 교육 열린다

내달 6일까지 ‘역량강화 과정’ 모집
창작자·예술가 대상 11월 4회 진행

인간과 유사한 사고와 행동을 가진 지능형 아바타를 창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1월 2~1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되는 ‘지능형 아바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품다: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 융합 워크숍’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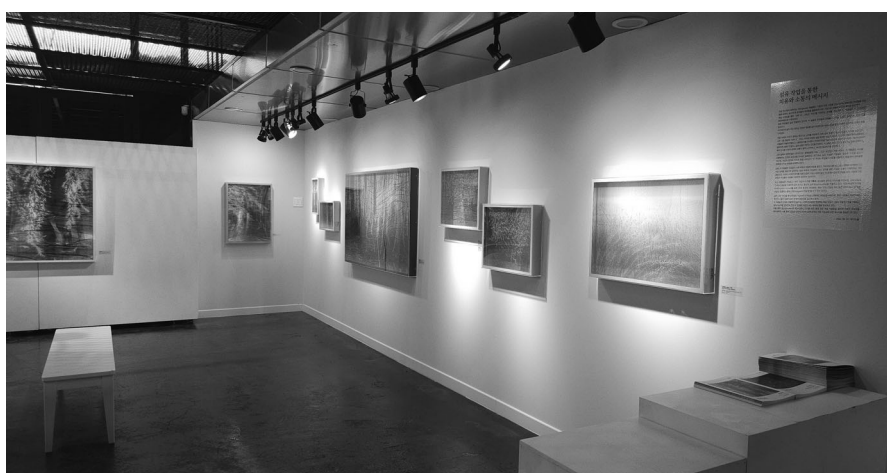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AI 기초이론부터 언리얼 엔진과 언어 모델 연동 심화 과정까지 폭넓게 다룬다.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AI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차세대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CC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생은 선발을 통해 선정되며, 교육비는 4만원이다. 광주지역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가 지원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워크숍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참가자들이 인공지능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청사 이전 기념 특별전 ‘관계’가 오는 27일까지 건물 내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 청사 이전 기념전 ‘관계’

27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섬유예술가 정예금 참여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광주시민회관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기념 특별전시 ‘관계’를 오는 27일까지 건물 내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광주출신의 섬유예술작가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광주현대포럼 분과위원인 정예금 작가의 작품 16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재단청사이

전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너와나’,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관계를 형상화한 전시 작품들은 반입체적인 투영작업으로 구현됐다.

모든 작업물은 실로 연결돼 있으며 여가서 실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유기적인 관계의 힘을 드러낸다. 다양한 삶을 표현한 색칠 드로잉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아크릴 미러(Acrylic mirror)를 통해

연출한, 보는 이의 시점에 따라 같은 이미지가 달라지는 홀로그램(hologram) 현상도 보는 재미다.

전시 오픈식은 오는 10일 오후 6시에 개최된다. 오픈식에는 패션쇼, 중창단, 퓨전국악, 악기연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새 청사는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주말은 휴관한다. 전시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전시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 전시관(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